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은 높고, 일하는 시간은 짧고, 급여 수준은 낮습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을 때 개인연금에 조기 가입해 은퇴자금을 확보하고, 일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활용해 노후자금의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 은퇴설계를 말하다

글 · 김리비아 수석연구원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2014년 5월 말 현재 2,559만 6천 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19.5%로 남성의 15.2%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OECD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전체 가구 소득 빈곤율¹⁾은 14.6%인데 반해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 위험은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림 2]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빈곤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성별 빈곤율 격차는 5.4%p 정도로 남녀 간 격차가 큰 국가군에 속하여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의 빈곤화로 발생하는 은퇴소득의 성별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떻게 은퇴설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빈곤율이란, 전체 가계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 수준의 50% 미만인 가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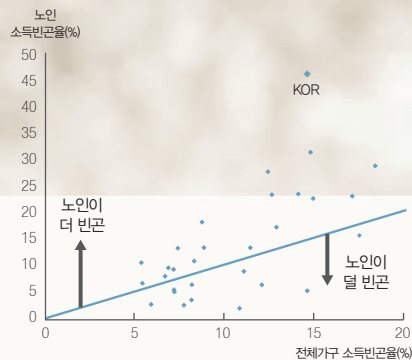
I. 여성 빈곤의 원인

1. 여성의 긴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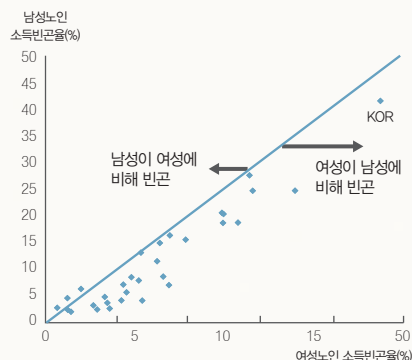
여성의 기대수명은 2012년 기준 84.64년으로 77.95년인 남성에 비해 약 7년 정도 깁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은퇴소득을 마련한다면 동일 소득으로 7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기대수명 탓에 여성은 남성보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유사한 노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약 50% 정도의 노후자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녀 모두 동일하게 65세 이후 기대수명까지 한 달 100만 원의 기본 생활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거기에 의료비를 고려하면 남성은 약 1.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여성은 약 2.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림1] 노인과 전체인구의 소득 빈곤율



[그림2] 성별 소득 빈곤율



자료: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표1] 성별 노후 생활자금 비교

	남성	여성
기대수명	77.95세	84.64세
65세 이후 노후생활자금 ^{주)} (a) (1인당 한 달 100만 원 가정)	15,180만 원	23,340만 원
65~85세 의료비(b)	3,603만 원	4,604만 원
기본생활비+의료비 (a) + (b)	18,783만 원	27,944만 원
남성 대비 여성의 노후 생활자금	남성 = 100	여성 = 148.7

주: 65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은 간편 계산을 위해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하였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한 현재 가치 계산은 하지 않았음
자료: 생명표,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남성의 약 6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에 달하는 노후생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결혼, 육아 등 현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은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2.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결혼·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긴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5월 현재 52.2%로 74.4%인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인 62.3%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특히 결혼과 육아가 집중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내림세를 보이는데, 이는 상당수의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짧은 기간 일하고 더 적은 은퇴소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로 연결되어, 남성에 비해 충분한 노후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성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은 남성수급자가 69.7%로 여성수급자 30.6%에 비해 39.1%p나 높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인 노령연금에서 수급자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근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유족연금은 남성수급자가 8.0%인데 반해 여성수급자가 92.0%로 '남성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의 가족형태가 아직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2] 성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노령연금	장애편지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계
남성	1,908,507	64,659	2,384	39,646	93,544	9,320	2,118,060
	69.7%	85.2%	83.3%	8.0%	53.0%	51.1%	60.2%
여성	839,948	11,275	478	456,427	82,987	8,915	1,400,030
	30.6%	14.8%	16.7%	92.0%	47.0%	48.9%	39.8%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반면, [표3]에서 보듯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여성 임의가입자가 2008년 2만 7천 명에서 2012년 17만 5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반길 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전체 여성 가입자 850만 명 중 210만 명(전체 여성 가입자의 약 24.7%)이 여전히 납부예외자라는 사실입니다.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의 가입대상자이나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경력단절로 인해 연금의 필요성이 더 큰 여성의 노후소득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표3]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남성	7,032,157	2,179,069	2,556,121	32,682	24,127	11,824,156
	61.3%	55.8%	54.8%	15.7%	27.2%	58.2%
여성	4,432,041	1,724,148	2,109,058	175,208	64,449	8,504,904
	38.7%	44.2%	45.2%	84.3%	72.8%	41.8%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3. 낮은 임금수준

2010년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평균이 15%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평균은 39%로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여성 빈곤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실제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인 노령연금은 남성이 평균 387만 원인 반면 여성은 평균 231만 원으로 남성 가입자 평균 급여의 60% 선으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4] 성별 국민연금 급여 수준

(단위: 천 원)

구분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남성(a)	3,870	4,207	12,451	1,700	4,340	1,564
여성(b)	2,312	3,762	10,400	2,472	2,917	1,821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수준 (b)/(a)	59.7%	89.4%	83.5%	145.4%	67.2%	116.5%

주: 성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전체 지급금액을 수급자 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사실 여성을 위한 은퇴설계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의 은퇴 소득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여성 고용을 확대하여 미래 은퇴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3]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중 국민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고용 확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여성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림3] 노후소득 보장 구조

사적 연금	연금저축		
	(DB/DC 가입자, 퇴직자)	IRP(DB/DC 가입자에 한함)	
		퇴직연금	
공적 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대상	비경제활동자	근로자

자료: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당장 기대수명은 높고, 일하는 기간은 짧고, 급여 수준은 낮은 여성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해 은퇴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성의 은퇴설계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여성의 은퇴설계 시 유의사항

1. 여성의 퇴직연금 가입은 남성보다 중요,

위에서 언급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군 복무 등으로 여성에 비해 취업연령이 약 2~3년 낮은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3년 앞서 취직을 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소득과 경제참여율이 높은 20대 중반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자금을 최대한 확대 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2. DB보다는 DC가 적합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 중 여성에게 더욱 적합한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사전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DB보다는 DC로 분석되는데, 이는 DC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DC는 개인적인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노후생활을 위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C의 경우 추가 납입금에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는데, DC는 DB보다 이러한 근로행태를 보유한 근로자에게 더욱 적합한 제도입니다. DB는 퇴직 직전의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승진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DB의 장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바로 반영되고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DC가 더욱 적합합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직 및 퇴직이 잦고, 육아, 임신 등의 문제로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제도뿐 아니라 IRP 가입을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roll-over)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노후생활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수령방식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에 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의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퇴직연금 가입의 필요성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는 남성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이며, 여성의 경우 초기에 준비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남성보다 불안정한 노후생활을 보내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3.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라

최근 여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²⁾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약 2만 명에 불과하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 수가 2012년 기준 약 17만 5천 명으로 증가해 '전업주부 국민연금=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각자가 납입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사망 시에는 1)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거나, 2)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 20%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여성의 배우자인 국민연금의무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인 여성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만 추가로 받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주 소득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임의 가입한 배우자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모두가 생존하는 장수위험을 고려하면 임의가입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라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여성일수록 개인연금에 조기 가입하여 노후에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은 기대수명이 길고 경제활동을 하는 패턴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개인저축은 더욱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는 것이 좋으며 전업주부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다는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15~20년간 납입하고 70세 연금 개시 상품에 가입하면 부족한 국민연금에 더해 단독 생활 시 노후자금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10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 자격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 기준소득 월액(2014년 4월 기준 99만 원)'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해 최소 89,100원을 내야 합니다.

5. 부부형 은퇴설계를 하라

은퇴자금 마련 시 부부가 함께 은퇴설계를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게 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노후에 연금으로 탈 때 남편 사망 후에도 부인이 계속적으로 연금으로 탈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액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남은 가족이 계속 유족연금을 타게 되므로, 대표적인 부부형 은퇴설계 상품입니다. 또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부부형 은퇴설계의 한 방법입니다. 남편 사망 후 수령하는 종신보험금으로 부인이 혼자 사는 기간 동안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友

